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9. 29.(월) 배포 2025. 9. 29.(월) 14:00

국립백두대간수목원, ‘2025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 개최

-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무료 개방 -
- 포토존, 체험·이벤트, 문화행사, 플리마켓 등 즐길거리 가득 -

“최장 10일간의 추석 황금연휴! 가을꽃 200만 송이로 물든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봉자페스티벌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보세요.”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은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2025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꽃, 별에 그리우다’를 주제로 열리는 ‘봉자페스티벌’은 봉화 자생 꽃 축제로 기후위기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 첫날인 10월 2일에는 교향악 공연, 어린이 동요 독창 등의 개막행사에 이어 나태주(풀꽃 시인), 한서형(향기 작가), 허태임(숲을 읽는 사람 저자) 작가와 함께하는 ‘풀림’ 토크 콘서트가 펼쳐진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일대에서는 ▲지역민·예술인 버스킹 공연 ▲지역 농·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숲을 만드는 프리마켓’ ▲예술인 및 농가 협업 ESG아트 특별전시 ‘별 일 없이 꽃피우는 중’ ▲국립대구과학관 협업 ‘찾아가는 박물관’ ▲자생식물 모빌, 마그넷 만들기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또한 10월 4일에는 경북문화재단 협업 구석구석문화배달 공연으로 마당극과 향낭만들기 체험, 7일과 8일에는 ‘봉자야(夜)놀자’ 야간 프로그램으로 무드등 만들기와 마술·풍선쇼가 준비됐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추석 당일을 제외한 축제기간 동안 무료 입장을 실시하며, 관람객 편의를 위해 연휴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영주·안동, 대구, 서울에서 출발하는 왕복 셔틀버스를 1일 1회 사전예약제로 무료로 운행한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백두대간 봉사페스티벌은 지역상생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2019년부터 시작해 7년째 개최하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대표 축제”라며 “온 가족이 함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오셔서 백두대간의 가을을 즐기시고, 힐링하는 추석 연휴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서비스본부 고객센터실	책임자	실 장	허재균 (054-679-0853)
		담당자	주 임	임새랑 (054-679-0862)



< 사진설명 >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오는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하는 봉화지역 자생식물 축제인 ‘봉사페스티벌’ 홍보 포스터

